# 2018. 3. 13. [화] 언론보도

SBS

2018-03-13 12:46

## [수도권] '생태계 보물창고' DMZ 보호해야...대규모 생태 조사

동영상 뉴스

<앵커>

비무장지대 DMZ는 오랜 기간 고립으로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특성을 나타냅니다. 정부가 이곳에서 대규모 생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국 서쌍교 기자입니다.

<기자>

네, DMZ 일대에 동식물의 서식 밀도가 높다는 건 오래전부터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런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베리아로 돌아가는 재두루미 떼가 DMZ 인근의 습지에 내려앉아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꽁꽁 얼었던 하천과 땅이 풀리면서 갯지렁이 같은 습지 속 생명체들이 활동을 시작해 먹이가 풍부합니다.

또 다른 하천 돌무더기에 텃새화 한 민물가마우지 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독수리는 까치둥지를 빼앗아 휴식을 취하고 흰꼬리수리는 강에서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DMZ에서 포착된 희귀 조류의 겨울나기 모습입니다.

DMZ는 습지가 발달하고 사람의 간섭이 적어 야생 동물이 휴식하거나 먹이 활동하는 최적의 장소가 됐습니다.

[김승호/DMZ 생태연구소장 : 남방계 북방계가 만나는 점이지대의 독특한 생태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라파고스에 비견되는 우수한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DMZ 주변 191km 구간의 생태자원을 대규모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가 마무리된 연천지역에서만 멸종위기 1급인 두루미 등 조류 96종 2만 8천여 마리가 확인됐습니다.

고라니, 멧돼지, 오소리 등 포유류의 서식밀도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물도 731종이나 확인했고 습지에서 미기록 생물도 종종 발견됩니다.

[임순택/경기도 DMZ 정책담당관 : 천혜의 자연환경의 보고임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도 고양, 파주, 김포 구간의 철책 속에 숨은 보물들을 계속 찾아낼 계획입니다.]

DMZ 생태 조사에서 확인된 동식물의 명칭과 위치, 일시 등은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DMZ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 관광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쌍교 기자(twinpeak@sbs.co.kr)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2018-03-13 22:21

# 경기도, 자연의 보고 'DMZ' 생태도감 만든다

Loading the player ...

【앵커】

비무장지대 DMZ는 60년이 넘게 사람의 발길이 끊기다 보니 생태계의 보고가 됐는데요.

경기도가 DMZ 일원의 생태도감을 제작해 희귀 동식물을 보호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재두루미" 가족이 임진강을 찾았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멸종위기에 놓인 두루미 무리가 한가로이 거닙니다.

비무장지대 DMZ와 인접한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일대는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지 60년이 넘다보니 말 그대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지난해는 멸종위기 1급인 흰꼬리수리와 비오리 등 96종의 조류가 발견됐고 족제비와 고라니 등 7종의 포유류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김승호 / DMZ생태연구소장 : 분단 때문에 생태가 보호되어지는 갈라파고스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인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류에도 중요한 생물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경기도가 DMZ의 생태도감을 제작합니다.

2020년 완성을 목표로 지난해 연천 일대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파주지역을 내년에는 김포와 고양시의 생태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DMZ와 평화누리길의 생태자원을 파악해 동·식물군의 위치와 명칭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최현종 / 경기도 DMZ보존팀장 : 연천 DMZ일원이 임진강과 한탄강, 화산지형, 습지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천혜의 보물창고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DMZ 일원의 자연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DMZ 일대의 희귀 동식물의 보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파괴된 생태 지역을 복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편집 : 이종진>이재상 기자Copyright © OBS 뉴스